

# AI·모빌리티 투자유치 수도권 공략



강기정(왼쪽)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현안과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 광주시장, 7기 경제투자자문단 출범 후 첫 회의 경제동향 파악·기업 정보 수집...앵커기업 인센티브 확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7기 수도권 경제투자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투자자문단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인사로 경제계와 법조계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날 자문위원 10명을 새로 위촉, 수도권 경제투자자문단을 총 20명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간이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경제동향 파악, 투자 의향 기업과 타깃 기업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류경선(주)아주디자인그룹 회장, 박주형 신세계 센터빌리티 대표,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한진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신영철 TY홀딩스 미디어담당 사장, 배우주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 1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민선 8기 시장 현안 공유, 광주시 미래 비전 전략, 투자유치 방향 등에 대한 제안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류경선 (주)아주디자인그룹 회장은 "광주시가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갖춘 자문위원들과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며 "광주에 애정이 큰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단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향인 광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애정을 쏟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인공지능(AI)과 자동차를 양 날개 삼아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한다. 산업을 키워 도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등 기본 소식도 연이어 들리는 만큼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산업의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연관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투자유치 전 과정을 윈스톱 지원하고, 이를 견인할 앵커기업과 유망기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농수산물식품, 싱가포르에 수출 교두보

### 현지 기업 LNC와 年 300만 달러 협약...남도음식 세계화 앞장

전남도가 21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한국 식품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LNC와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하는 등 남도음식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종근 대표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식품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적극 홍보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연간 300만 달러의 싱가포르 수출 달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근 대표가 2009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LNC는 싱가포르 현지 식당 200여 개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또 한국식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오케이식품'을 비롯해 'LEE마트', 한국식 반찬 전문점 '전찬찬'과 한국형 분식집 '원더풀 밥상'을 운영하며 연 매출 1억5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한국산 식품 전문 수입·유통기업이다. 이종근 대표는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가 혼재한 다민족 국가이면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외국인으로 외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높다"며 "전남도와 적극적인

협업은 물론 LNC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면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식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LNC와 남도음식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 박람회'에 전남을 대표하는 김, 김치, 유자, 전일염, 녹차, 장류, 한식육수, 오징어스낵 등을 생산하는 8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전라남도 식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식품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전남 수출기업의 전시 및 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해 세계 식품시장에서 전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통과

### 김용임 시의원 발의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입금으로 편성해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 중"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공기관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산 후 예산을 반납토록 하



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점검하고 회계 처리 개선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는 앞서 2023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 관행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출연금 중 순세계입금 30억 원이 삭감 조치됐고, 각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한 후 부족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여수광양항 물동량 감소 대책 논의

##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 개최...친수시설 관리 등 각 기관 협력 다짐

전남도는 2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를 열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위광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김광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선중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부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 여수광양항

활성화 건의사항, 홍보?협조사항, 자율토론 등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지난 2018년 241만TEU를 정점으로 감소세인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감소 원인과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처리 실적 1위 항만이자, 총 물동량 처리 실적은 2위 항만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밖에 여수신북항 등 친수시설 관리 운영 방안, 여수 중화동 수제선 정비사업 2단계 추진, 항만 재개발 송배수 시설사업,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보상업무,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에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어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다른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검토해 여수광양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시청·산하기관 직장내 괴롭힘 32건, 처벌 빈약"

## 채은지 시의원 적극 대응 촉구

광주시청과 산하 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 광주 시 산하 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갑질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광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공 기관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착오나 허위신고를 감안하더라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37개 산하기관 중 26개 기관은 갑질 업무 담당 인력이 단 1명이다"며 "기관 규



모에 맞는 인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대중컨설팅센터 기관 직원 괴롭힘은 인권옹호즈맨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취해진 조치는 인권교육과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였다"며 "광주시의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 조정 검토, 가해자 엄중 처벌,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 셉터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